

1990년대의 금융위기에 비한 2008년 미국금융위기의 특징

홍 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겪고있는 경제적위기는 자본주의경제제도자체의 산물입니다. 썩고 병들고 자기 시대를 다 산 자본주의경제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제국주의나라들을 휩쓸고있는 경제적위기를 극복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전집》 제56권 120페이지)

현대제국주의의 경제위기는 새로운 양상을 띠고 끊임없이 격화되고있다. 현시기 심화되고있는 경제위기의 하나인 금융위기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위협하면서 나라의 전반적경제생활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고있다.

금융위기는 새 세기에 들어와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자본주의세계전반을 휩쓸면서 더욱 심화되고있다. 그것은 2008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위기와 1990년대에 일어난 금융위기를 대비하여보아도 잘 알수 있다.

2008년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위기는 1990년대에 발생한 금융위기와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2008년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위기의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미국내부에서 주택담보대출부위로부터 발생한것이라는데 있다.

1990년대에 일어난 금융위기는 미제가 《세계화》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앞잡이들을 내세워 조장시킨데로부터 일어났다. 1990년대에 일어난 금융위기로서는 1992년의 유럽위기, 1994년의 메히꼬금융위기, 1997년의 동남아시아금융위기를 들수 있다.

미제는 일정한 나라, 일정한 지역들에서 화폐자본의 투기행위를 진행할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 다음 저들의 화폐투기업자들로 하여금 해당 나라와 지역의 화폐를 공격하여 환자위기를 조성한 다음 국제통화기금을 개입시켜 전반적통화금융분야를 혼란시키였다.

그러나 2008년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위기는 미국자체내에서 주택담보대출부위가 발생된것으로부터 일어났다.

2008년 미국에서의 금융위기는 2007년 여름 《주택거품》이 터지면서 발생되였다. 《주택거품》이 터진다는것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살림집가격이 일정한 기간 계속 뛰어오르다가 자기 한계를 벗어나면 순간에 떨어져 금융시장을 마비상태에 빠뜨리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초래된것은 살림집가격이 계속 뛰어오르는 기회를 리용하여 폭리를 노린 주택대부회사들과 그로부터 자금을 대부받아 주택투기에 달려들었던 저소득층 주택사용자들이 살림집시세가 폭락함에 따라 자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여 은행들의 자금류통체계가 마비상태에 빠진것과 관련된다.

미국에서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주택가격이 계속 뛰어올랐다. 자료에 의하면 로스앤젤레스에서 보통살림집 한채당 가격은 1999년에 17만US\$였던것이 2006년에는 44만 7 000US\$로 뛰어올랐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주택가격이 평균 2배이상 폭등한 결과 《주택거품》이 형성되게 되였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해당 제품의 가격이 일정한 기간 계속 오르게 되면 투기가 성행하게 된다. 그것은 가격이 계속 오를것을 타산하여 물건을 사두었다가 물가가 일정하게 올랐을 때 팔아 가격편차에 의한 리득을 얻으려는것과 관련된다. 미국에서는 이 기

간 수많은 주택대부회사들과 주택사용자들이 폭리를 노리고 주택투기에 뛰어들었다. 미국에서 주택은 《현금을 낚는 기계》라고 불리울 정도로 투기행위의 주요대상으로 되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주택대부회사들은 대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살림집을 대대적으로 사들이었으며 그것을 다시 주택사용자들에게 기한부상환의 조건으로 비싸게 팔아 폭리를 보았다.

다른 한편 저소득층주택사용자들은 주택가격이 오르는 기회에 대부금으로 구입하였던 주택을 더 비싼값으로 파는 방법으로 공짜돈을 벌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투기행위에 2006년까지 무려 1조 4 000억US\$가 리용되었다.

2008년에 《주택거품》이 일시에 붕괴되면서 주택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취약성과 관련된다.

미국에서 주택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자본가들은 주택건설부문에 대한 자본투자를 급격히 확대하였다. 이 부문이 급격히 확대되어 주택판매량이 사회의 지불능력있는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주택가격은 다시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주택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랐다. 그것은 자본가들이 공짜돈을 벌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많은 자금을 주택투기에 투자함으로써 주택가격이 계속 높아지게 된것과 관련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2저당대부시장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사회의 지불능력있는 수요를 조성함으로써 주택가격이 계속 오른것과 관련된다. 자본가들은 사회의 지불능력있는 수요를 인위적으로 조성시켜놓고 주택가격이 계속 높아지는 기회를 리용하여 돈벌이를 하였다. 한편 저소득층사람들도 대부받은 돈을 주택투기에 돌리었다.

그러나 제2저당대부시장을 통하여 조성된 사회의 지불능력있는 수요는 대부금과 리자를 상환하여야 하므로 임시적이다. 대부금과 리자를 상환하면 그만큼 사회의 지불능력있는 수요는 감소되게 된다.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수탈과 세금수탈의 강화와 함께 일반상품가격인상으로 주택수요가 줄어들면서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한편 금리가 인상되었다. 금리가 인상되면서 주택구입자들은 대부금리자를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다.

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중요하게 원유가격의 인상과 관련된다.

원유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통화가 팽창되면서 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는 류통화폐량흡수를 위해 예금장려와 대부제한 등의 조치로 금리를 인상시켰다.

이렇게 되어 주택가격은 사회의 지불능력있는 수요를 훨씬 초과하여 높이 올랐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으며 살림집가격의 폭락과 금리인상으로 투기행위를 하던 회사들과 주택사용자들이 은행들에 막대한 빚을 지고 일시에 망하게 되었다.

2007년 한해동안에만도 상환되지 못한 자금이 전국적으로 약 2 000억US\$에 달한다고 한다. 2007년부터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저소득자들에게 대부하여주었던 돈만 하여도 6 000억US\$나 된다.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던 투기군들이 망하게 된것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대부하여주었던 은행들도 파산되었다.

주택대부회사들은 주택을 차압하여 경매에 붙이기도 하였지만 대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파산되고 주택담보대부증권을 사들인 은행들은 증권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파산되었다.

은행의 파산은 신용관계를 혼란시킴으로써 다른 기업체들이 자금난으로 하여 련이어 파산되게 하였다.

이로부터 거대은행들과 보험업체들이 연이어 경영난으로 파산되면서 류레없는 금융 위기가 미국사회를 휩쓸었다.

2008년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위기의 특징은 다음으로 그것이 삼시에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격화된데 있다.

물론 1990년대의 금융위기는 국제적범위로 확대되어 자본주의세계에 파국적후과를 미친 경우도 있었지만 일부 경우에는 해당 지역 및 시장범위에서 한정되기도 하였다.

1990년대의 금융위기의 하나인 1992년의 유럽위기는 미제가 유럽의 경제통합과정에 제동을 걸려고 조작한것이다. 미국의 조지 소로스일당은 유럽동맹내부에서 단일시장과 단일화폐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나라들보다 많다고 보고 도이쉴란트마르크나 프랑스프랑의 시세는 앞으로 오를것이고 영국파운드나 이탈리아리라의 시세는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국파운드를 사들인 다음 시기를 보아 대량적으로 방매하는 투기를 일삼았다. 잉글랜드은행은 떨어지는 파운드의 시세를 유지하려고 방대한 보유달러를 탕진하였으나 어쩔수 없이 위기를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1994년의 메히꼬금융위기도 같은 방법으로 조작되었다.

이것은 1990년대 금융위기가 미제에 의하여 일부 나라와 지역들에서 발생되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확대되었다.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확대된것은 불합리한 미국지배하의 국제금융통화체제와 관련된다.

현시기 국제통화금융체제는 미국달러중심의 국제통화금융제도로 되어있다. 이러한 국제통화금융제도는 전후에 체결된 브레튼 우즈협정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브레튼 우즈협정에 기초하여 미국달러는 자본주의국제기준통화의 지위에 올라서게 되었다. 이리하여 다른 자본주의나라 통화들은 독자적으로 금과의 연계를 못가지게 되었으며 오직 미국달러를 통해서만 다른 나라 통화들과의 교환비율을 가질수 있게 되었다.

미제는 달러가 자본주의국제기준통화로 되어있으며 국제결제의 대부분이 달러로 진행되는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외화사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해외군사비지출, 《원조》, 자본수출 등을 강화할수 있었다. 미국독점자본은 국내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여 독점적고물리운을 획득하고 해외에서는 달러의 특권적지위를 리용하여 자본주의 나라들에 착취와 략탈의 마수를 뻗칠수 있었다.

통화의 안정성의 간판밑에 여러 나라들사이의 금의 이동과 그에 따르는 매개 나라의 무역 및 통화관리를 규제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전후의 자본주의국제통화금융관계는 본질에 있어서 미제의 금융적지배와 수탈의 체제였으며 달러의 세계적살포를 매개하는 기본공간이었다.

달러를 금과 같은 국제통화의 지위에 올려놓았던 미국의 브레튼 우즈체제가 1970년대에 사실상 붕괴되었지만 미국달러중심의 국제금융통화체제는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달러가 금으로 상환될수 있는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후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세계에서는 금융위기가 더 자주 일어났다.

이것은 특히 미국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금융의 《세계화》의 후과라고 할수 있다. 미제는 동서간의 팽전이 종식된 후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세계화》를 제창하였다. 경제의 《세계화》전략은 자유시장경

제의 확대전략으로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시장을 개방하고 경제체제를 제국주의자들의 요구에 맞게 개혁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조건에서 세계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지배하기 위한 전략이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세계화》된 경제로서의 모든 나라와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제국주의나라들의 금융력이 임의의 나라와 지역에 제한없이 침투해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금융의 《세계화》, 금융개혁을 더욱 추진하고 그것을 다른 나라들에 강요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금융개혁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이 금융의 자유화, 금융의 증권화, 금융의 국제화이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미국의 강박과 유혹에 못이겨 금융분야를 개혁하고 개방하였다.

이로 하여 1990년대말의 동남아시아금융위기를 비롯한 국제적인 금융위기들이 연속 일어났으며 여러 나라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의 신탁통치를 받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미국은 이 과정을 통해 자유방임주의적인 저들의 금융통화체제를 본보기로 내세우면서 기울어져가는 국제금융통화체제를 구원하고 그에 대한 지배력을 보다 강화하려고 시도하였다.

미국의 대은행들은 주택대부와 관련한 채무를 증권화하여 국내금융시장에 유통시키었다.

무제한한 자유가 보장된 미국의 금융업계에서는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 외에 이러한것들을 바탕으로 한 여러가지 파생금융상품들이 나돌고있다.

미국의 대은행들은 주택대부와 관련한 여러가지 금융상품들과 그에 기초한 파생금융상품들을 국내시장에 유통시키었다. 파생금융상품의 출현으로 증권자산의 가치는 비누거품처럼 보다 크게 불어났다.

더우기 금융의 《세계화》를 통해 미국은행들과 밀접히 연결된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이러한 파생금융상품들을 자유롭게 사들였다.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대투자가들이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밀어넣었던 관계로 미국은 물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금융위기에 말려들게 되었으며 여러 나라 은행들의 자금유통체제가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위기의 발생은 파국적인 금융위기를 몰아오고 그것이 순식간에 세계금융위기로 번져졌던것이다.

이로부터 미국에서 발생한 파국적인 금융위기는 자본주의나라들의 금융기업들과 기업체들을 파산과 경영위기에 처하게 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2008년 3월말 당시 미국의 주택대부시장위기로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은행들이 약 6 000억US\$의 손실을 입었다. 이것은 미국의 주택저당증권거래과정에 입은 직접적인 손실액이다. 다른 금융시장들에서 간접적으로 입은 손실액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무려 1조 2 000억US\$이상에 달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파산과 경영난의 악화는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었다.